

임성재·김시우, PGA 페덱스컵 티켓 잡는다

14일 2차전...BMW 챔피언십
임성재 25위·김시우 41위 기록
30위 내에 들어야 출전 티켓

임성재와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동반 진출을 정조준한다.
지난주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으로 2025시즌 플레이오프에 들어간 PGA 투어는 14일부터 나흘간 미국 메릴랜드주 오웬스 밀스의 케이브스 밸리 골프 클럽(파70·7601야드)에서 열리는 BMW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으로 이어진다.
정규시즌을 마친 뒤 페덱스컵 랭킹 70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올라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을 치렀고, 이제 50명만 남았다.
페덱스컵 랭킹 5위이자 세계랭킹 10위인 제프 스트라카(오스트리아)가 가족 문제를 이유로 기권하면서 이번 주 실제 경쟁할 선수는 49명이다.
이 대회 이후 다시 페덱스컵 30위까지 추려 21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나서게 된다.
한국 남자 골프의 간판 임성재는 7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진출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2019년부터 PGA 투어 최정상급 선수의 상징과 같은 투어 챔피언십에 작년까지 출전했다.
이번 시즌엔 페덱스컵 순위 29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입한 그는 1차전을 공동 17위로 마치며 페덱스컵 순위를 25위로 소폭 끌어올린 뒤 2차전에 나섰다.
김시우는 2년 만의 투어 챔피언십 복귀를 노린다. 페덱스컵 순위 4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김시우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을 공동 14위로 마치며 페덱스컵 41위로 2차전에 진출했고, 투어 챔피언십까지 가려면 이번 대회에선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 결장했던 페덱스컵 랭킹 2



임성재

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이번 대회엔 돌아오며 선두 스코티 셰플러(미국)와의 막판 경쟁에도 더욱 붙어 붙는다.
세계랭킹과 페덱스컵 순위 모두 1위를 달리는 셰플러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2년 연속 페덱스컵 챔피언 등극을 향해 청신호를 밝혔다.
세계랭킹과 페덱스컵 모두 셰플러에 이어 2위인 매길로이는 지난달 20일 막을 내린 디오픈 챔피언십 이후 4주 만에 PGA 투어 대회에 출격한다.

매길로이는 4월 마스터스에서 정상에 오르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이룬 뒤엔 트로피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셰플러는 이후 5월 더CJ컵 바이런 넬슨을 시작으로 메이저 2승을 포함해 올 시즌 4승을 올려 두 선수의 희비 쌍곡선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플레이오프의 결말에 관심이 쏠린다.
연장전 끝에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페덱스컵 랭킹이 4위로 경종 뚫 45세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는 2주 연속 우승을 겨냥한다.



김시우

PGA 투어 홈페이지가 짧은 파워랭킹에서는 셰플러와 매길로이, 로즈 순으로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페덱스컵 랭킹 14위인 키건 브래들리(미국)는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
한편 LIV 골프는 15일부터 사흘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필드의 더클럽 앳 채텀힐스(파71·7295야드)에서 13번째 인디애나폴리스대회(총상금 2500만 달러)를 연다.
이 대회는 이번 시즌 마지막 개인전 대회로, 시즌

챔피언이 결정된다.
올해만 무려 5승을 올린 호아킨 니만(칠레)이 개인전 랭킹 선두(208.43점)를 달리는 가운데 직전 시카고 대회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윤 랍(스페인)이 니만과의 격차를 줄이며 2위(196.16점)를 달려 최종전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진다.
시카고 대회에서 공동 39위에 올랐던 장유빈은 마지막 대회에서 시즌 최고 성적 경신에 도전한다. 현재까지는 지난달 영국 대회의 공동 21위가 가장 높다.
/연합뉴스

‘해트트릭’ 기록...전남 발디비아 K리그2 24라운드 MVP

전남은 천안에 4-3 역전패

해트트릭을 달성한 전남드래곤즈의 전남 발디비아가 K리그2 24라운드 MVP를 차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2일 K리그2 24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천안시티FC와의 홈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은 발디비아가 MVP에 이름을 올렸다.
발디비아는 이날 0-0으로 맞선 후반 3분과 5분 연달아 골을 터트리면서 2-0을 만들었다.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장식한 발디비아는 2분 뒤 다시 골 세리머니를 했다. 문전으로 달려들던 발디비아가 오른쪽에서 정지용이 넘긴 킥백 패스를 받아 그대로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전남이 후반 11분 천안 김성준에게 추격골을 허용한 뒤 후반 19분에는 이상준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후반 28분에는 브루노에게 역전골을 허용했다.
2-3으로 뒤진 후반 39분 발디비아가 다시 움직였다.
호남이 머리로 넘겨준 공을 받은 발디비아가 골대 왼쪽에서 발리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발디비아의 맹활약에도 아쉽게도 승리는 천안의 차지였다. 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허용한 전남은 천안 김성준의 오른발을 막지 못하고 3-4 역전패를 기록했다.
발디비아는 팀의 패배에도 환상적인 골을 연달아 선보이면서 MVP의 영예를 안았다.
7골이 폭발한 이 경기는 K리그2 24라운드 베스트 매치가 됐다. 천안은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의 '주장' 발디비아가 지난 10일 천안시티FC와의 홈경기에서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세 번째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2년 6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한국의 손흥민(오른쪽)과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삼바군단’ 브라질과 맞대결 추진

10월 서울서 개최 논의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는 10월 서울에서 ‘삼바군단’ 브라질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10월 10일 서울에서 브라질과의 국가대표팀 간 친선경기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브라질축구협회(CBF)와 구체적인 조건 등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대표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고도 그해 6월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평가전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 경기에서 네이마르(산투스)에게 두 골을 내주고 1-5로 대패했다.
브라질의 방한이 성사되면 3년 4개월 만이다.
브라질은 그간 6차례 방한해 태극전사들과 평가전을 치렀다.
한국은 역대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8차례 맞대결에서 1승 7패를 기록 중이다. 1999년 3월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김도훈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FIFA 랭킹은 한국이 23위, 브라질이 5위다.
브라질 대표팀이 방한하면 1992년생 동갑내기 손흥민(LAFC)과 네이마르의 재대결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U. Giordano Andrea Chenier

광주시립오페라단 2025 달빛동맹교류공연 <안드레아 세니에>

일시 : 2025-08-29(금) 19:30
2025-08-30(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

Flute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